



사자빈신 삼매와 부처님 경계

입법계품은 세존께서 사위성의 서다림(逝多林)에 있는 기수급고독원의 대장엄중 각 강당에서 보현·문수 등 오백 인의 보살과 오백 인의 성문들과 그리고 무량한 여러 세상의 주인 및 권속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곳에 모인 대중들이 모두 부처님의 경계·지혜로운 행·힘·삼매·머무시는 처소·몸·지혜는 모든 세간의 사람들이 알 수가 없고, 중생들에게 알게 할 수도 없으나 오직 부처님의 힘·선지식들이 겨우 어주는 힘·정정한 믿음의 힘·깨달음을 향한 청정한 마음의 힘·광대한 서원의 힘으로는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과 모든 중생들의 여러 가지 욕망·이해·지혜·머무는 처지·마음의 경계·여래의 공덕을 의지함·설법을 들을 등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옛날에 온갖 지혜를 구하시던 마음으로부터 여러 가지 수행하시던 인연 그리고 깨달음을 이루시고, 묘한 법륜을 굴리며, 불국토를 청정케 하시며, 일체 중생을 위하여 모든 부처님의 형상을 나타내어 보이시는 등의 여러 가지 법을 모두 설하여 주셨으면 하고 생

각하였다. 그때 세존께서는 모든 보살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큰 자비심으로 곧 사자빈신삼매(獅子頻伸三昧·60권 화엄경에는 사자빈신삼매 獅子奮迅三昧)에 드신다. 그러자 세간이 모두 깨끗하게 정엄되고, 대

자비 나타내는 정신통일 경지

시공초월 구제하는 생명의 세계

장엄누각이 갑자기 한없이 넓어지며, 모든 곳이 여러 보배로 훌륭하게 장식된다. 또한 부처님의 신통으로 서다림이 출연히 커져서 불가설불찰미진수 세계의 국토들과 면적이 같게 되었는데, 그 모든 세계 또한 여러 가지 내용과 모습으로 훌륭하게 정엄돼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엄들은 여래의 선근·위신력·여래가 한 몸으로 자재하게 변화하여 모든 세계에 두루하는 것·여래가神通한 힘으로써 모든 부처님과 부

처진 국토의 장엄을 그 몸에 들어오게 함·여래가 한 티끌 속에 모든 법계의 영상(影像)을 나타냄 등이 부사의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었다. 이렇게 부처님 국토가 청정하게 장엄한 것을 보는 것은 서다림의 급고독원뿐만이 아니다. 사방의 온 법계, 허공계에 가득한 모든 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장엄을 볼 수가 있다.

이 때에 사방으로 각각 미진수 세계를 지나가서 있는 세계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있던 보살이 각각 미진수 보살들과 함께 급고독원으로 모여들어 부처님께 정례하고 기부좌하고 앉는다.

이와 같은 광경들은 모두 세존께서 사자빈신삼매에 들어가시자 나타난 것들이다. 청정하고 아름답게 장엄된 세계의 광경은 범부 중생의 마음에 의해 나타난 광경

이 아니고, 모든 번뇌를 정화한 부처님의 마음에 의해 나타난 광경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환경 세계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점에 눈뜨게 된다.

사자빈신삼매는 부처님의 커다란 자비를 나타내는 정신통일 경지이다.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자처럼 힘차게 용기를 떨치고 일어나 활동하려고 하는 삼매다. 그리고 입법계품에서

세존께서 이러한 사자빈신삼매에 들어가시자 나타나는 부처님의 경계는 청정한 눈에 비쳐진 고요하기만한 그림같은 세계가 아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비로운 중생구제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영원한 대생명의 세계이다.

자비심이 없이 주변세계와 결점으로 닫혀져 있는 중생심으로 보는 세계는 모든 것이 서로 대립 차별해서 장애가 있기 때문에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는 세계이다. 그러나 주변세계를 위하고 그것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자비심의 세계는 모든 것이 상호간에 아무런 막힘이나 장애 없이 응통무애하면서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세계가 되는 것이다. 입법계품에서 부처님께서 사자빈신삼매에 들어가시자 모든 세간이 깨끗하게 정엄되고, 대장엄누각이 갑자기 한없이 넓어지며 서다림이 출연히 커져서 불가설불찰미진수 세계와 같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비유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계품에서 부처님 경계와 그것을 실현하는 보살행에 대해 설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을 알고, 이와 같이 삼매의 경지로서 그것에 담하고 있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 부처님의 경계는 본래 언설로서 나타낼 수 없는 경계다. 그러므로 그 경계는 삼매로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경계이다. 그리고 수행자가 그 경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경계를 통감하는 삼매의 행을 체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계품에서의 보살행은 여러 가지 삼매에 의해서 설해되고 있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



태아 정말 마음 지니고 있는가?

사람이 성인이 되면 지각(愛)의 본성에 의해 탐욕이 생긴다. 이 탐욕을 애(愛)라고 한다. 이것을 12 연기에서는 수(受)는 애(愛)를 낳는다고 말한다. 성인은 애(愛)의 본성에 의해 집착을 하게 된다. 이 집착을 불교에서는 취(執)라 부른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기쁨이나 쾌락을 경험하려면 그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슬픔은 멀리하고 싶어하게 된다. 이것을 12 연기에서는 애(愛)는 취(執)를 낳는다고 한다. 성인은 취(執)의 본성에 의하여 죽지 않고 오래 살려고 싶어한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유(有)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유(有)란 존재에 대한 집착이다. 이것을 12 연기에서는 취(執)는 유(有)를 낳는다고 말한다.

그러면 의학에서는 태아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현대의학에서는 유

과 인터뷰 결과, 수정하기 전의 영적인 존재(pre-existence)는 지구상의 많은 문화권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또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다고 하였으며, 그래서 칼만 부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출생 전 영적인 존재가 미래의 부모를 결정한다고 하였으며 그들은 출생 전 영적 존재를 'spirit-child'라고 불렀다. 따라서 비록 태아가 육체적으로는 미성숙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산모와의 통신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둘째, 태아가 이러한 영적 존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태아는 엄마의 감정을 느낄 줄 알고 또한 음악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태아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출생 후 자궁 생활을 생생히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많은 산모 태아와 영적 접촉 경험

태아 마음 보편적 아닌 초월적

물론적 의학이기 때문에 성인의 마음도 뇌의 부수 현상이라고 생각하므로 미숙하기 짝이 없는 태아의 뇌에서 마음 같은 것이 있어서 작용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불교의 진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태아는 수정하는 순간부터 마음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초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할렛 여사는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에서 임신 중 태아와 영적인 접촉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태아는 처음 영적인 존재로부터 시작하여 나중에 육체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하였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칼만과 길 칼만 부부는 출산 경험이 있는 100명의 여성

심리학자 봉가드, 맥마너스, 발드윈 및 마스터즈 등은 회원을 이용하여 사람의 자궁 내 태생기의 기억으로 퇴행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사람은 임신 5개월의 자궁 생활의 기억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태아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정신 의학자 크루피츠크는 케타민이라는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하면 자궁 내 생활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영국의 벨페스트 대학의 태아행위연구소의 헤퍼 교수는 태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보편적인 마음이 아니라 초월적인 마음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불교의 진리와 외국의 초심리학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태아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충남대 의대 산부인과학



그림·문병성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④ · 곽

뚜렷이 홀로 밝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진실한 마음은 몹시 어렵고 불법은 심오하지만 알고 보면 쉽다. 내가 종일토록 저들에게 말해주어도 배우는 자들은 조금도 뜻을 두지 않으니, 천 번 천 번 밝고 지나가면서도 철쭉같이 깜깜하다. 하나의 모양도 없으면서 뚜렷이 홀로 밝은데도, 배우는 자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명칭 위에서 알음알이를 내면서, 나이 50이 지나도록 다만 밖으로 송장만을 지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짐을 지고 천하를 다니니 질신 값 물어낼 날이 있을 것이다.

마음공부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익혀온 세속의 허망한 마음을 반야의 진실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세속의 허망한 마음은 이름과 모양이라는 대상만을 좇아 다니며 정작 그렇게 행하고 있는 바탕인 자기 자신은 알지 못하는 마음이고, 반야의 진실한 마음은 이름과 모양을 좇는 일이 전부 자기에게서 비롯된 자신의 입입을

잘 알아서 대상에 속지 않는 마음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로지 세속의 허망한 마음만을 익혀왔을 뿐, 반야의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꿈에도 보지 못했던 것이다. 반야의 진실한 마음은 전혀 생소한 것이다. 바로 여기에 마음

헛된 생각 버리면 진실한 마음 보여

공부의 어려움이 있다. 늘 익숙한 습관대로 행하는 것이 쉽고 자연스런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스런 일은 세간의 허망한 마음과 반야의 진실한 마음이 본래 하나의 같은 마음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허망함 속에 있으면서 진실을 그리워하게 되

고, 그 그리움이 심해져서 목마름으로 되면 진실한 마음을 찾으려는 마음공부를 발심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 다행스런 일은 허망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이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허망한 마음에 익숙해져 있더라도 진실한 마음을 찾으려는 발심만 굳으면 언젠가는 진실한 마음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태도는, 자신이 현재 진실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진실한 마음에 관련한 자신은 알지 못하며 보이지 않는 감각적 어둠 속에 있어서 어떻게든 손을 쓸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진실한 마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에, 이제까지와 같이 이름과 모양을 통하여 대상을 파악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진실한 마음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어떤 방법을 통하더라도

진실한 마음은 알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명확히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공부를 할 올바른 자세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든 손을 쓸 수 없는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어떤 방법에도 의존하지 않고, 다만 진실한 마음에 목말라 하며 길을 찾으려는 간절한 마음 하나 뿐인 것, 이것이 바로 마음공부의 올바른 자세이다.

무엇을 찾아내고 알아내는 방법으로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방법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손을 놓고서 어떻게든 할 수 없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문득 본래 대대로일 뿐 달리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확연히 알아차리게 된다. 허망한 마음 그 대로가 본래 진실한 마음인 것이다. 다만 허망한 의식을 놓지 못하고 있을 동안에는 진실한 마음이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헛된 생각과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견해를 버리면, 바로 그 자리에 본래부터 진실한 마음이 뚜렷이 홀로 밝을 뿐이다.

김태환 · 부산대 강사, 철학과

■김태환 선생의 '임제록' 강의는 이번 44회로 신 문연재를 마감합니다. 45회부터 이어지는 강의는 김태환 선생의 홈페이지 http://www.mindfree.ne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51-515-7226(무선선연)

불자님, 이제 병고에서 벗어납시다!!
오랜세월 불보살님 가피를 입은 큰스님께서 세상에 한분 밖에 없는 초능력 힘을 지닌 불보살님으로 명명 받은 분께서, 병원에서도 치유되지 않는 원인모름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불자님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증증, 와사풍, 중풍 (발병 6개월이내) 간질, 만성위염, 오장육부가 불편, 만성두통, 천식, 천도폐렴, 관절염, 만성피부질환, 정신질환 설사 및 어려운 병 등 (내방환영합니다)
* 작명, 오행철학(五行哲學), 인생의 길 안내와 상담도 해드립니다
대구 팔공산 깃바위 뒷길 주차장 100m 전방 김나무식당 아래 (선화정사)
053)614-7935, 011-808-8880

지혜정사
한방치료 · 요양 · 휴양
새질 지혜정사는 3대째 내려오는 한의술을 불교로 회향코져 창건한 북한강과 양수리가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며 땅의 기운이 힘차 물맛이 좋고 조용하며 고요한 청정도량입니다.
* 1인 1실 숙식 월 30만원 (침실, 진료, 봉사) (비구니 스님 특별 혜택)
* 전주, 군산식 맛깔스런 공양 올립니다.
◆ 절 : 경기도 마석 담내리 ☎ 031-592-8418
◆ 한의원 : 서울 제기동 ☎ 02-966-5725
◆ 휴대전화 : 011-790-5725

영험도량
픽마승 애원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천 접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접신
- 20년전 낙태혼 접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접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원사 조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승복 법복 인네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항상 처음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계몽·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1. 모직혼방 (누비, 직방, 바지)
2. 면 100% (누비, 직방, 바지)
3. 누비 (면술 100%) (누비, 롱방, 바지)
4. 누비 (혼방) (누비, 롱방, 바지)
5. 법복 (회색, 밍크) (누비, 두루마기)
6. 장삼 (모직)
7. 승복 (골덴)
* 전화로도 가사 주문 받습니다 *
* 꽃어오시는날: 대구 지아질 중앙로역 3번 출구 앞
3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섬유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포장동 6-11 (지역대리점모집)